

經絡연구로 북한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본인

김봉한 (金鳳漢 1916~1967년?)

朴星來 <한국외국어대 사학과 교수/파학사>

필자가 미국에 유학하고 있던 60년대에 북한의 의학자가 세계적인 발견을 했다는 소식을 어디선가 읽은 기억이 있다. 돌이켜 보면 그것이 어쩌면 미국에 가기 직전 한국에서 들은 것인지, 미국 가서 알게되었던지는 명확하지 않다. 바로 김봉한(金鳳漢, 1916~1967년?)의 경락에 대한 발견이었음을 나중에야 알 수 있었다. 경락(經絡)이란 한의학, 또는 동의학의 가장 중심되는 개념이다. 우리 몸에는 온몸을 이어주는 경맥(經脈)과 낙맥(絡脈)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경락이란 단어를 북한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 '몸 안에서 기혈이 순환하는 통로. 경맥과 낙맥으로 이루어진다. 끈게 가는 줄기를 경맥이라 하고, 경맥에서 갈라져 나와 온몸 각 부위를 그물처럼 엮은 가지를 낙맥이라고 한다. 기혈이 통하는 통로로서 온몸에 기혈을 공급하여 몸을 영양하며 하나의 통일체로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병적 인자의 통로로, 병적 현상을 반영하는 역할도 한다. 경락이 장애되면 병이 생기는데 이때 경락에 있는 침혈을 자극하면 병이 낫는다. 이로부터 동의학의 모든 분야에서 생리와 병리에 대한 해석과 진단, 치료에 경락이론을 응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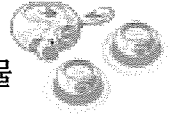
락의 해부조직학적 바탕은 밝혀지지 못하였다.' 평양백과사전종합출판사가 1988년에 출간한 「동의학사전」은 1990년 서울의 까치출판사에서 한국에 맞도록 재편집하여 출판했다. 경락에 대해 위에 인용한 설명은 이 사전에 나오는 전문(全文)을 옮긴 것이다. 이 설명만 읽어 보더라도 60년대 북한의 의학계를 흔들고, 세계에 자랑했던 김봉한의 경락 이론이 지금은 전혀 신용할 수 없는 이론이었다고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의학사전」의 설명처럼 지금 북한에서는 경락 이론의 '해부조직학적 바탕은 밝혀지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서울서 약종상의 아들로 태어나

바로 그 경락의 해부조직학적 설명을 하고 나섰던 것이 60년대의 김봉한이었다. 김봉한은 1916년 서울에서 약종상의 아들로 태어났다. 한약방에서 한의학을 보고 자란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뒤에 그의 한의학에 대한 관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그는 경성제2고등보통학교(지금의 경북고)에 진학하여 고교를 마친 다음 1934년 경성제국대학에 입학했다. 당시 조선 안에는 대학이 거의 없어서 식민지 조선의 청

년들은 일본에 유학가기 마련이었다. 그런 가운데 경성제국대학이 만들어져 몇사람의 수재만이 여기 합격할 수 있게 되었으니, 김봉한 역시 그런 수재의 한 사람으로 발탁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서울대학교의 전신이라고 할 수도 있는 당시의 경성제대 이과에는 1934년 조선인 21명이 합격했는데, 같은 해에 문과에 합격했던 사람 가운데에는 김석형(金錫亨)과 박시형(朴時亨)의 이름도 보인다. 이들은 모두 유명한 북한의 역사학자가 되었는데, 김봉한은 이들과는 달리 생리학을 공부하여 뒤에 의학자가 되었던 셈이다. 그는 1941년 졸업하여 생리학 조교를 하다가, 월북하기 직전까지는 서울여자의과대학 교수를 지냈다.

양 의사였던 그가 한의학에 매진하게 된 것은 아마 6·25에 월북한 다음부터 바로 시작되었던 것 같다. 1956년 그가 북한에서 발표한 연구논문을 보면 '일시적 기온이 골격근의 흥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전 분석'이라 되어 있다. 분명히 서양의학의 생리학 분야에 속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기에 북한 의학계에는 한의학을 동의학(東醫學)으로 존중하는 경향이 자라고 있었다. 그것은 또한 주체(主體)사상의



60년대에 북한의 의학자 김봉한(金鳳漢)이 경락(經絡)에 대한

세계적인 발견을 했다고 하여 떠들썩했던 일이 있었다.

1916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경성제대를 나와 서울여자의과대학 교수를 지낸 후 6·25때 월북했다.

노벨상 감이라고 자랑하던 그의 업적은 1967년 소련의학계에서 인정할 수 없다는 통고를 받은 후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배신자로 몰렸다는데

뒤늦게 남한에서 그를 평가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성장과도 맥이 통하는 셈이다. 서양의 학이 아닌 우리식 의학을 향한 노력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경락실체 규명한 「봉한관설」 발표

1956년 4월 노동당 3차대회에서 김일성은 “우리 인민들이 오랜 기간 사용하고 습관화된 한의학을 깊이 연구 분석하고 그 우수한 점을 섭취하여 대중보건사업에 도입하도록” 할 것을 강조했고, 당연히 과학원 의학연구소에는 바로 동방의학연구실이 세워졌다.

북한과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에는 처음부터 의료문제가 심각하게 되었다. 그것은 원래 서양의학의 보급이 아주 빈약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갑자기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국민에게 고르게 의료혜택을 주려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절대부족한 양의 의료활동을 보충하기 위해서라도 한의사들을 흡수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점은 중국과 북한이 마찬가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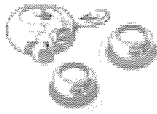
김봉한이 어떻게 동의학에 기울게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때쯤에는 자연스럽게 그의 연구가 동의학으로 향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 시작했다. 북한 사람들이 화학자 이승기(李升基)와 함께 노벨상 감이라고 주저없이 말

했던 김봉한의 업적은 ‘봉한학설’에 집약돼 있다. 이 학설은 두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전통 동양의학의 핵심개념인 경락의 실체를 규명한 ‘봉한관(鳳漢管)설’이다. 다른 하나는 세포보다 작은 미세한 조직인 산알(‘살아있는 알’이라는 뜻)이 봉한관 속을 돌아다니며 세포가 되고, 세포는 다시 산알로 변하기를 반복하면서 순환시스템 속에서 생명현상의 근본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산알학설’이다.

이 이론은 1961년 8월 조선의학자대회에서 처음 발표된 이래 1965년까지 전후 5차례에 걸쳐 학술논문으로 발표됐다. 김봉한의 연구결과를 두고 북한 당국은 흥분해 마지 않았다. 북한은 “이 위대한 발견은 현대생물학과 의학 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개척한 혁명적 사변이며 세계과학사에 금자탑을 이루어 놓았다”(조선중앙통신, 1964)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연구논문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외부세계에 타전됐고 노동신문을 비롯한 매체들은 그의 업적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평양의학대학 교수였던 김봉한이 새로운 논문을 발표할 때마다 매체들은 앞다투어 대서특필했고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적어도 북한 내에서는

없을 정도가 됐다. 1948년 9월 북한 정권 수립 이래 김일성을 빼고는 가장 유명한 인물로 부각되었던 모양이다. 그에게는 1962년 1월 박사학위가 수여되었다. 그때까지 북한에서 의학 박사는 7명 정도 뿐이었다니, 대단한 영광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조금 이상한 것은 그해 1월 23일 국가학위학직위원회 상무위원회가 학위 수여자를 결정할 때는 그의 이름이 빠져있었는데, 6일 뒤인 29일 다시 회의를 열고 김봉한 한사람만의 학위를 추가하는 결정을 내린 기록이다. 그의 연구는 1964년에 그 절정에 이른다. 이 때를 전후하여 평양에는 경락연구원, 경락학회가 생기고, 그의 이론은 영어를 비롯한 몇가지 외국어도 출판되어 세계 각국에 이를 보급했던 것 같다. 아마 노벨상을 겨냥했거나, 그와 비슷한 국제적 평가를 받으려고 노력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반발이 없지 않았던 것 같다. 북한 안의 의학계 만이 아니라 중국 한의학계가 이에 대해 호의적으로 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의학계의 반발만이 아니라 정치적 후원 문제까지 얽혔을 가능성이 있다. 마치 소련에서 뤼생코 사건이 과학계의 스캔들로 후세에 이



름을 날리듯이, 북한 사회주의에서는 김봉한학설이 비슷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소련 과학계서 불인정 후 자취 감춰

여하튼 1966년에는 봉한학설 등은 사라지고, 경락연구원과 경락학회가 폐지되었으며, 북한의 보건상과 의학 연구원장이 교체되는 등의 일대 변화가 나타났다. 또 1967년에는 소련 의학계가 경락의 발견을 과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통고했다고도 전한다. 이후 북한의 모든 공식 문건이나 서적에서 김봉한과 그의 이론은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북한의 젊은이들은 그의

이름마저 모를 만큼 제거는 철저했다.

봉한학설의 폐기와 함께 김봉한은 하루 아침에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배신자 짬으로 낙인찍힌 것으로 보인다. 탄광이나 어느 시골 농장으로 쫓겨났다는 설이 있는가 하면, 얼마 후 자살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북쪽 정보가 상당히 자유롭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는 특히 공동철(孔東徹)이 「김봉한」(1992년)과 「소설 김봉한」(1997년)을 썼고, 이 책들에서 상상력을 한껏 발휘하여 그의 일생을 재구성한 일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모두 믿기란 어려울 정도로 상상적인 구성이 많다. 보다 학문적인 연구

로는 최근 전북대의 김근배(金根培)교수가 그 학설의 위치를 평가하고, 북한의 과학 모습을 밝히려는 연구를 발표한 일도 있다.—김근배 「과학과 이데올로기의 사이에서 : 북한 '봉한학설'의 부침」 〈한국과학사학회지〉 21-2(1999년 12월)

점차 북한에서는 침묵하고 있는 김봉한의 역사적 평가가 오히려 남에서 진행되기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때 북한 사회를 요란하게 만들었던 위대한 의학상의 발견자 김봉한의 그 후 행적을 확실하게 알기에는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①7

과학만평



그림 : 崔 民